



가방으로 우간다
아이들에게 희망의
끈이 되어주는 일이
내 일입니다

TOGETHER⁺

함께

Vol.26 2018 SUMMER

COVER STORY

따뜻한 봄날, 지역문제를 가방을 통해 메시지를 담아 전달하는 제리백을 찾아갔습니다. 우간다 지역 아동들이 물을 나를 때 감수해야 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간다 디자인을 모티브로 한 가방을 지역 여성을 직접 고용하여 제작합니다. 또 일반인에게 판매된 가방의 개수만큼 현지 아동에게 보급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리백의 박중열 대표님이 이번 호의 주인공입니다.

지난 호 독자참여 코너에 참여해 주신 애독자분들의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퀴즈에 응모해 주신 분들 가운데 정답을 맞으신 분을 추첨하여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상품을 선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 당첨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합니다.

[지난 호 퀴즈 정답]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STP (복수 정답)

퀴즈 당첨자 **윤민호 님 백효진 님 유희수 님
한현진 님 전청식 님**

당첨자 의견 국제적으로 아동과 가족을 위해 힘쓰는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을 응원합니다. 여러 체험을 통해 아이들이 많이 경험하고 도전하려고 하는 의지를 갖게 된다는 점이 좋은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NGO단체로 재단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 부탁드립니다. (유희수 님)

[독자참여]

TOGETHER+함께 26호에서 가장 좋았던 코너를 선정해 주세요.

shmin2016@hamkke.org로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6월 초 재단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합니다.



미션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여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비전 2025 시민사회의 자발성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가장 신뢰받는 기관

Vol.26 2018 SUMMER

발행인 송월주 | 발행일 2018년 5월 31일 | 발행처 (재)함께일하는재단
주소 (03992)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6길 36 | 대표전화 02-338-0019

홈페이지 http://www.hamkke.org

기획·편집 (재)함께일하는재단 | 디자인 오즈커뮤니케이션

후원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513-196182-13-105 / 국민은행 032901-04-181772
농협 301-0011-3418-11 / 신한은행 140-008-341200

● 'TOGETHER+ 함께'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수록된 내용은 임의로 복제, 변형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푸르른 5월, 마음을 전합니다”

글 | 일자리증진팀 정상용 책임매니저



함께일하는재단과 동행해 주시는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일자리증진팀 정상용 책임매니저입니다.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의 가치를 생각해보게 되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아직 부모님, 선생님, 주변 지인분들에게 연락하지 못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안부를 묻는 건 어떨까요? 가까이 있는 분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5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도 우리 부모님 세대를 위한 사업이라 저에게는 더욱 뜻깊은 것 같습니다. 유한김벌리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시니어케어매니저 양성 및 활동지원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 및 정서안정을 돕는 전문강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만 55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사업 슬로건인 '마음을 전합니다'처럼 일을 진행하며 어르신들께 마음을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갖고 계신 열정을 지속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시니어들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함께일하는재단의 여러 사업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ONTENTS

- | | |
|--|--|
| 04) 특집 기획
생산가능인구, 64세까지로 정할 이유가 있는가? | 12) 함께하는 일의 흥미
일하는 物
너와 나의 연결고리
스트링 잡스(string jobs) |
| 06) 현장 속으로 1
경력단절 시니어 인생 제2막
시니어케어매니저 | 14) 내일에서 on 편지
인터뷰
가정의 달,
나눔으로 희망을 전해요! |
| 09) 현장이슈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에 참여한
STP 파트너기관을 알아볼까요? | 18) 재단소식
재단 동향 및 이슈 |
| 10) 현장 속으로 2
태풍이 휩쓸고 간 황폐한 지역에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이 건네는 손길 | |

생산가능인구, 64세까지로 정할 이유가 있는가?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 가운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당연한 일이지만 다가올 고령사회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손승우 이사는 고령화문제에 대한 해답을 생산가능인구 증가에서 찾는다. 유한킴벌리와 함께일하는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시니어케어매니저 양성사업은 액티브 시니어 사업 모델의 하나로 시니어 스스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고 고령사회 인식변화를 제약하는 통계의 틀에 변화가 필요한 때다.

2012년부터 '액티브 시니어-시니어가 자원입니다'라는 캠페인을 진행하여 미래 성장 동력의 하나로 시니어사업에 주목해 고령화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공유가치 창출(CSV)을 도입한 유한킴벌리 손승우 이사에 대해 고령화시대 노인 일자리에 대한 현황과 대응방안을 들어본다.

글 | 유한킴벌리 손승우 이사 편집 | 윤영지원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시니어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비용을 청년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시니어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분담하는 것도 고령사회의 지혜이자 해법일 것이다”



고령화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지 못한 한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63만 명을 정점으로 가파르게 감소하여 2055년이 되면 2,50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2055년에 1,857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안타깝지만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앞으로 다가올 고령사회의 터널에서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출산과 육아가 삶에서 가치 있는 부분 중 하나라는 공통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기에는 그간 우리 사회가 시행했던 전략과 예산 투입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고령화문제 해법 중 하나는 생산가능인구의 증가

다음으로 가능한 방법은 생산가능인구를 늘리는 것이다. 급격하게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를 출산율 증가 없이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면 가능할 수도 있다. 현재와 과거의 65세 어른을 비교해 보자. 환갑잔치와 진갑잔치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다고 볼 정도로 환갑은 젊은 나이이다. 생산가능인구는 64세까지인데, 만약 70세까지만 생산가능인구로 편입할 수 있다면 고령화에 대한 고민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유한킴벌리가 지난 6년간 함께일하는재단과 협력해온 액티브 시니어 캠페인과 시니어일자리 창출이 고령화 해법의 작은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시니어 스스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시니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매우 후진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 1차 정년이라 불리는 주 직장에서의 퇴직 평균 나이는 55세다. 64세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되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사회적 위상은 고도성장의 산업사회를 이끌어온 40, 50년대 출생 시니어들이 맞는 상황이었다. 이렇듯 우리 사회는 충분히 젊은 시니어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누군가는 청년 일자리를 없는데, 시니어 일자리를 고민해야 하나고 반문한다. 그렇다면 과연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일을 해야 할 청년들이 시니어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하는 것이 맞을까, 시니어의 경험과 지식

이 꼭 필요한 일을 경험 없는 청년들이 대신 하는 것이 맞을까? 경험 등을 고려할 때 시니어와 젊은이들에게 각각 더 적합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시니어에게 적합한 일을 창출하고 경제 파이를 키우는 것은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다. 시니어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비용을 청년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시니어 스스로 경제활동을 통해 분담하는 것도 고령사회의 지혜이자 해법일 것이다.

액티브 시니어들이 증명한 시니어 일자리

최근 3년간 유한킴벌리와 함께일하는재단이 진행한 시니어케어매니저 사업은 은퇴한 시니어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심리안정,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정서안정을 돕는 전문 시니어 강사로 양성하는 사업이다.

심리치료사, 간호사, 영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시니어들을 모집하고 교육을 통해 시니어 시설에 파견 교육을 나가는 방식인데 은퇴 전 전문 직종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참여했으며 연령대도 65세 이상 인 분들이 30%나 되고 75세 전후 시니어 등 연령대도 다양했다. 이분들은 아직 사회활동에 대한 의지와 의욕도 상당해서 생산가능인구에서 배제해야 할 하등의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다.

우리사회가 과거 나이라는 틀에 갇혀 액티브 시니어의 사회활동을 배제하고 단지 부양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시니어가 행복할 수 없고 고령사회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젊은층과 장년층, 그리고 시니어들이 창의력과 경험, 지식을 나누고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고령사회의 긴 터널은 어둡고 막막한 길이 아니라 즐거운 여행에서 만나는 잠깐의 긴장, 다시 나타날 터널 밖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기대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고령사회 인식변화를 제약하는 통계의 틀에 변화가 필요한 때다.

» 함께일하는재단은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퇴한 시니어를 대상으로 시니어를 돌보는 노노케어의 대표적 사례인 시니어케어매니저 양성사업과 시니어들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기업비즈니스 성장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니어들에게는 일자리를 통한 활력을 드리고 새로운 시니어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력단절 시니어 인생 제2막 시니어케어매니저

Why
왜
시작했나요?

재단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회 사각지대 일자리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진행한 사업입니다. 백세인생, 은퇴 후 좋은 일자리가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은퇴한 시니어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인지정서활동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What
무엇을
했나요?

은퇴한 55세 이상의 전문 시니어강사가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요양시설 등에 파견되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심리안정,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해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정서안정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 노노(老老)케어 - 정서안정 - 인지강화
- 건강증진 - 치매예방

How
어떻게
했나요?

시니어케어매니저가 2인 1팀으로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요양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의 인지강화를 위한 교육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시니어케어매니저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3주간 40시간의 전문가 양성교육을 진행하였고 1기관 주 1회 교육을 목표로 최대 24회 이상 시니어케어매니저분들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역량강화를 위해 사회기여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어르신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 전문가 양성교육 - 시니어케어매니저 활동 지원
- 협력기관 발굴 - 사회기여형 일자리 모델 개발

시니어케어매니저는 유한김벌리 시니어일자리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니어케어매니저는 은퇴한 시니어가 심리안정,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정서안정을 돕는 전문 시니어 강사입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삶뿐만 아니라 은퇴한 어르신들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이끌어내 새로운 시니어 일자리 모델을 만들어 갑니다.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노인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롭게 인생 제2막을 시작하는 시니어케어매니저 분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까요?

글·편집 | 운영지원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어르신들의 침체된 기억을 되새겨 주면서 인지활동을 도와드리는 게 저희 일이지요.”

정노희
시니어케어매니저



“사람은 태어나고 모두 죽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길재현
예비 시니어케어매니저

2기 시니어케어매니저 활동 소감

프로그램을 통해 점차 상태가 호전되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시니어케어매니저 활동이 필요하다고 느꼈어요. 지금은 센터 분위기에 익숙해지느라 모두 파악하지 못했지만 어르신들 내부에 많은 기억들이 침체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어르신들의 침체된 기억들을 되새겨 주면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의 작은 변화와 발전을 실제로 접할 때면 정말 이쪽 길을 잘 선택했다는 생각을 해요.

이후에도 계속 관련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해당 분야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어요.

3기 시니어케어매니저 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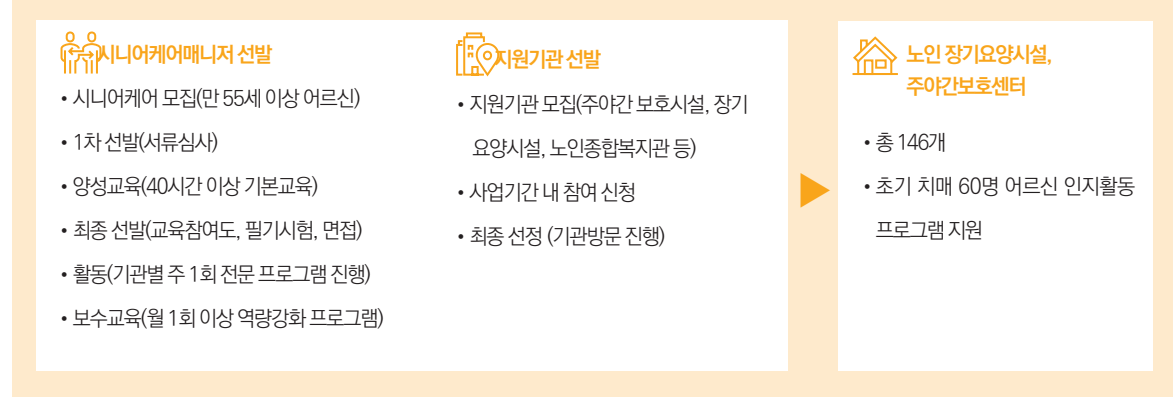
저는 2기 시니어케어매니저에 지원했으나 안타깝게도 탈락했어요. 하지만 이 일이 제 사명이라는 생각과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지만 공적인 단체에서 해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3기에 다시 도전하게 됐어요.

사람은 태어나고 모두 죽지만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다 보니, 제 열정이 사라졌을 때를 기능을 못하겠어요.

제 주특기는 인지재치치료인데 시니어케어매니저로 활동하면서 제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싶어요. 또 활동하면서 어르신들과 교감을 나누고 싶고 대화하면서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할 예정이에요.

시니어케어매니저 활동 한눈에 보기

지원 프로세스



숫자로 보는 지원현황 및 성과 (2017년 12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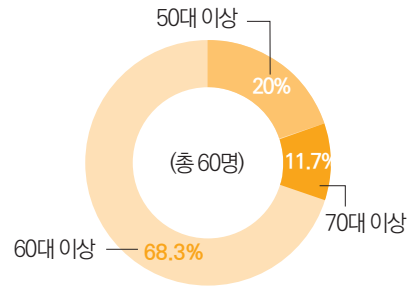
연령별 고용현황 (최고령자: 76세, 최연소: 57세)

60명
시니어 고용창출 및 유지

3,440시간
어르신 인지활동 교육시간

146개
수혜기관

16,439명
수혜 어르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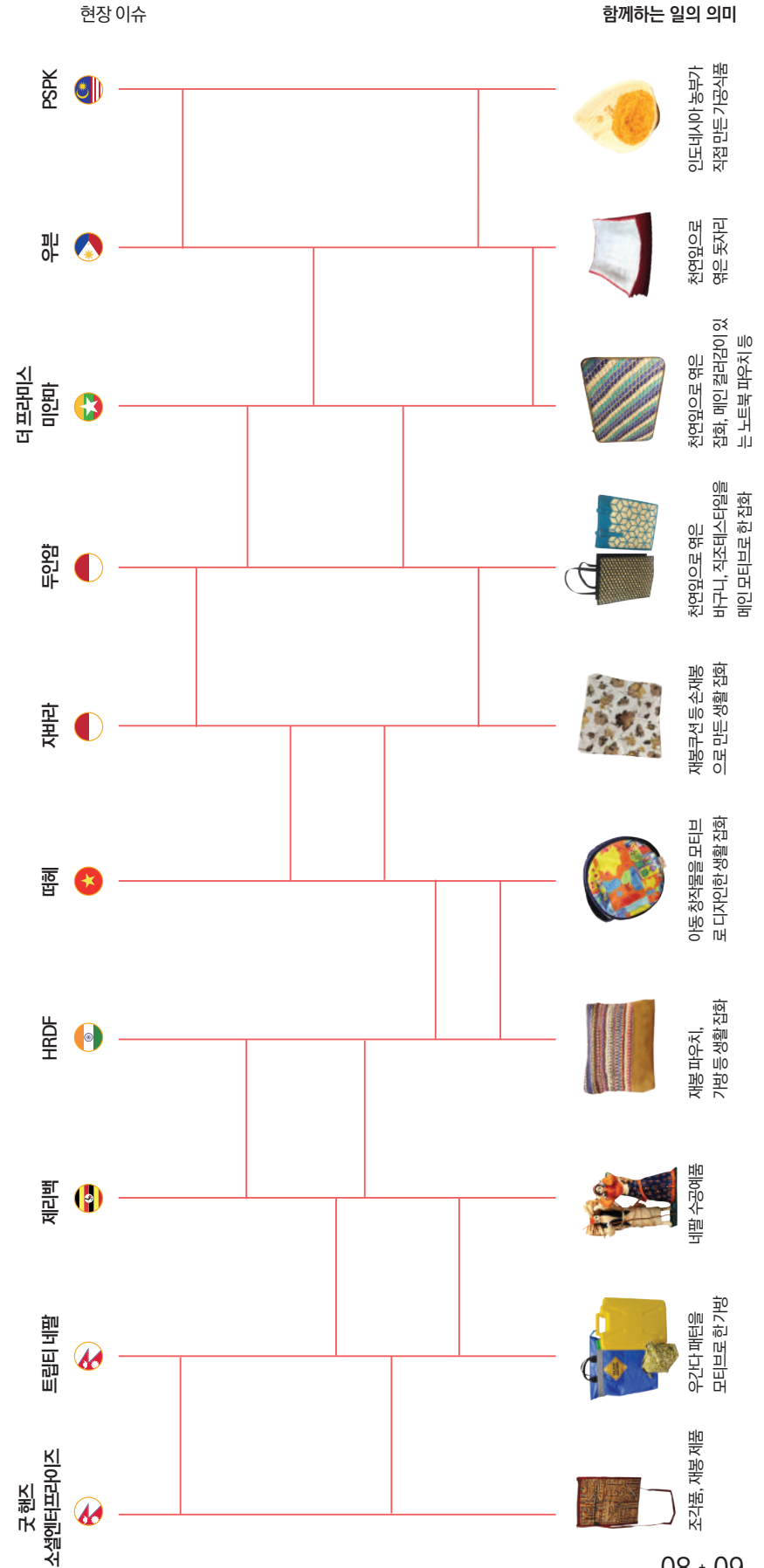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에 참여한 STP 파트너기관을 알아볼까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에 참여하는 STP 파트너기관은 무료 판로개척 컨설팅과 투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STP 파트너기관의 초기 한국시장 진입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2개국 1개 기관이 추가로 참여해 총 8개국에서 10개 기관이 참가했습니다. 기관의 미션을 통해 생산되고 있는 상품들을 따라가 보세요.

기획·편집 | 운영지원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태풍이 휩쓸고 간 황폐한 지역에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이 건네는 손길

태풍 피해지역 여성자립을 위한
수공예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우븐'

필리핀 사회적기업 우븐은 티록 생산자그룹 조직 및 역량강화자원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통직조가 무시당하고 제 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도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조캠프를 열어 전통 직조교육과 전승에 힘쓰고 있습니다. 직조자 한 사람이 일주일에 걸쳐 하나의 매트를 짜면 6개의 가방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얻은 수익은 12,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븐은 중간상인이 가져가는 수입으로 인한 수익구조를 개선하고자 중간 상인의 역할을 우븐에서 수행해 수급방식을 변화시키고 직조자들에게 6~8만원 정도로 소득을 돌려주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현재 기관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을 바자회나 온라인상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상황인데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파트너기관으로 참여하면서 판로개척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개발 관련 교육과 청년 직조기술 워크숍 참여자를 지원하고 수공예품 판매로 얻은 수익은 빈곤층과 일자리가 없어 도시로 가려는 청년 및 여성 등을 위해 사용될 계획입니다.



Riza Gayon(OSTWA 직조그룹 리더, 23세)

저는 현재 5살짜리 딸 아이를 둔 엄마로 할머니와 함께 4년째 OSTWA 직조그룹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어요. 지역의 젊은 직조자로 역량강화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협회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죠. 직조그룹에서는 우븐에서 요청하는 상품들을 제작해 납품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그룹 생산량의 25%가 우븐 제품이에요. 이전에는 매트 직조자였는데 매트와 완제품 가격결정권이 구매자에게 있고 판매에 어려움이 있어 직조그룹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이곳의 회원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고 직조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직조기술을 가르쳐 주기도 해요. 앞으로 재단 지원을 통해 지역개발 교육 및 청년 직조기술을 키울 수 있는 과정이 마련되길 바라요.

재단은 해외 빈곤아동·가정지원 사업으로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개발도상국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으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2018년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6기 국가로 선정된 필리핀은 태풍 하이옌 이후 집이 없어지고 농장도 망가져서 지역 내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기업에 일자리가 생겨 이전 웃음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이 지역에 가져온 변화를 함께 살펴볼까요?

취재 | 국제협력팀 이명희 책임매니저 글·편집 | 운영지원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극빈지역 아동 영양환경 개선을 위해
코코넛 생활잡화 디자인을 생산해 판매하는 '코코허스크'

필리핀 사회적기업 코코허스크는 1990년대부터 필리핀 해외이주노동자 기금으로 필리핀 지역사회를 개발하거나 이주노동자 귀환 시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2008년 외환위기로 인해 조직의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직장이 불안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자산 없이 귀환해 기부금 액수가 줄었고 이들을 위한 사업비용이 필요해졌습니다. 또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해 지역개발기금보다 재해복구기금에 집중되는 현상 또한 기관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지역의 사람들은 대부분 코코넛 농사나 바나나 플랜테이션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최대 극빈지역으로 실업률이 40% 이상에 육박하고 아동영양결핍, 성매매, 낮은 교육률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자체적으로는 기부금의 한계를 깨닫고 사업을 필리핀 전체에 확산할 수 있는 NGO 재정구조 개선 모델사업으로 코코넛 섬유제품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품제작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ISEDS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DOCSE(Davao Oriental Coco Husk Social Enterprise)를 통해 코코넛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파트너기관으로 참여하면서 기관은 판로개척에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수익금은 아동 영양상태 개선을 위한 영양식을 제공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Miyeok(DOCSE 장기 근무자, 50세)

저는 코코넛 부산물로 생활잡화를 만드는 일을 하기 전에 광산에서 5년 동안 일을 했어요. 하지만 광산일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알아보다가 코코넛 생활잡화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됐어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전에 했던 일에 비해 위험하지 않아서 좋아요. 저는 이곳에서 제 아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함께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 아들은 공부를 시키려해도 공부하기를 원치 않고 있어요. 하지만 제 손자들에게는 꼭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어요.



01



02

01 | 티록 생산자그룹 조직이 매트를 짜고 있는 모습
02 | 완성된 매트 모습



03

03 | 코코넛 섬유제품을 만드는 모습

너와 나의 연결고리 스팅 잡스 string jobs



일과 관련된 도구를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는 재미있는 직업의 세계를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되는 도구인 끈을 이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직업군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함께일하는재단 소기업 비즈니스 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으로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등을 개발하여 시니어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글_취재 | 운영지원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권오철 매니저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유용한 수단이에요”
제리백_박중열 대표

제리백은 우간다 지역 아이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역문제와 연결해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가방에서 끈을 받는 포인트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가방에 물통을 넣었을 때 끈이 힘을 받아 좀 더 편리한 이동을 도와주기 때문에 우간다 아이들 생활보전을 위한 생명의 끈이라고 생각해요.



“디자이너와 기관의 연결이에요”
아트임팩트_송윤일 대표

실과 끈은 연결의 의미예요. 저희가 운영하는 매장 이치 (each)의 컨셉인 큐레이션 플랫폼은 무언가에 담긴다는 의미가 커요. 저희 회사 자체가 돋보이기보다 입점해 있는 브랜드를 더 돋보이게 만드는 게 저희의 역할이죠. 매장에서 돋보이는 건 공간브랜드보다 입점된 브랜드와 제품들이고 디자이너들과 공통된 목표를 만들어 나가고 연결해 준다는 의미예요. 소기업들은 연결되어야 상호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 크거든요.



“반려견을 안내하고 보호자와 유대관계를 강화시켜주는 도구예요”
위키도기_김종애 대표

반려동물은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존재예요. 반려견을 키울 때 산책과 교육이 잘 수행되면 강아지를 잃어버릴 일은 없어요. 또 산책을 하면서 동물과 유대관계를 쌓을 수 있고 산책을 할 때 리드줄(목줄)은 꼭 필요하죠. 리드줄은 어디를 가더라도 반려견이 다시 안전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하고, 동시에 보호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끈이라고 생각해요. 리드줄은 반려견과 보호자의 안전을 책임지고, 서로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예요.



“브랜드와 소비자 간에 연결된 특별하고 단단한 관계예요”
LAR_계효석 대표

저희가 만든 신발끈은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들과 달리 왁스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 잘 풀리지 않고, 오염도 덜 되는 장점이 있어요. 또 광택도 있어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죠. LAR에게 신발끈은 좋은 신발을 만들고자 하는 저의 의지이자 소셜미션으로 맺어진 브랜드와 소비자와의 특별하고 단단하게 연결된 관계라고 생각해요.

'내일에서 on 편지' 가족 편

가정의 달, 나눔으로 희망을 전해요!

TOGETHER+함께 23호에 실린 '응답하라 1990! 친구 편'을 기억하시나요? 시골의 작은 중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 릴레이 기부 캠페인에 참여한 사례였습니다. 이번호 주인공은 친구 편에 실렸던 친구 중에 부여에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이기중 씨 가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개인기부에서 가족까지 기부에 동참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등 가족들이 모여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5월입니다. 그동안의 고마움을 선물로 전달할 수도 있겠지만 내일에서 on 편지에 참여해 가족들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내일에서 on 편지는 청년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는 릴레이 기부 캠페인입니다.

인터뷰 | 이기중 씨 가족 기획 | 기획협력팀 김연수 책임매니저 글·취재 | 운영지원팀 민세희 선임매니저



안녕하세요. 이기중 후원자님! 개인 기부에 이어 가족 기부를 통해 다시 한번 만나 뵈게 되어 기쁩니다.

안녕하세요. 재단과 인터뷰를 한 지도 꽤 시간이 흐른 것 같네요. 작년 여름에 만났으니 거의 1년 만에 다시 만나 뵈네요. 당시에는 농사일 등으로 아주 바쁠 때였고 날씨도 아주 더웠던 걸로 기억해요. 또 고향 친구들이 내일에서 on 편지를 통해 나눔에 동참하고자 각지에서 본업을 제쳐두고 한자리에서 모일 수 있었죠.

캠페인을 통해 오랜만에 친구분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니 다행이네요. 벼농사를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지금은 농번기 중 가장 바쁜 시기 아닌가요?

벼는 5월에 심어 10월 말에 수확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손이 많이 가는 때예요. 특히, 요즘은 일 년 양식을 심는 모내기 시즌으로 모내기에 앞서 논둑을 손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농사는 생각 이외로 손가는 일이 참 많아요. 하지만 친구들과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고 있어서 즐겁게 하고 있어요.

가족이 함께 내일에서 on 편지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달력만 봐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날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 가족도 일반적인 가족들과 다르지 않게 근교에 나들이를 간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는 했어요. 또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이 평소 갖고 싶어했던 선물을 사주기도 했죠. 그런데 이번 어린이날은 제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좀 더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먼저 캠페인 참여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가족들에게 나눔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고 사회에 가치 있는 일에 함께 동참한다면 더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거죠.

“가족들에게 나눔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고 사회에 가치 있는 일에 함께 동참한다면 더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족 전체가 내일에서 on 편지의 후원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대가족이 후원에 동참한 사례가 오랜만이어서 너무 기뻐요. 가족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내일에서 on 편지 동참 취지를 설명해 주셨나요?

가족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친구의 제안으로 참여하고 있는 내일에서 on 편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고 캠페인의 취지를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모금된 금액은 사회 취약계층에 있는 아동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얘기해 주었고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간에 시간을 보내는 일은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이런 좋은 기회에 사회적으로 상황이나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돕는 일에 참여해 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가족들에게 나눔을 제안할 때 부담은 없으셨는지, 나눔을 제안받았을 때 가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해요.

내일에서 on 편지를 제안받기 전에는 나눔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한 적은 있었지만 실제 행동으로 실천한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친구에게 내일에서 on 편지를 제안받고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제가 조금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죠. 저희 가족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캠페인 동참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을 때 처음에 놀란 반응을 보였지만 어려움에 처한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는 오히려 가족들이 지지를 보내주었고 릴레이 기부 캠페인에 가족이 함께 참여해 뜻



을 모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해 주었어요. 사회에 좋은 일을 하는 데 동참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가족 모두가 캠페인에 동참하는 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후원자님의 아이가 나눔을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이들에게 받는 기쁨보다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을 통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어린이날 선물 대신 아이들의 명의로 된 나눔 증서를 선물했어요. 기부를 신청하고 며칠 후 기부증서가 집으로 배송되어 왔고 아이들에게 보여주었죠. 아이들은 자신이 사회에 좋은 일을 했다는 부분에 굉장히 기뻐했어요. 아버지로서 아이들에게 나눔을 통해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해준 거죠.

“아이들에게 받는 기쁨보다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을 통한 행복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후원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청년실업과 같은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어서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이런 사회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직도 우리 주변의 사회 문제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계기도 조금씩이지만 도움의 손길이 모이면 어떤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었으니까요. 실제 나눔에 동참하게 된 이후에는 이런 생각에 더 확신을 갖게 됐어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는 사회활동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50가구가 모여 사는 조그만 시골마을이에요. 마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인 분들로 구성되어 독거노인 문제와 같은 지역 문제가 있어요.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제가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주변의 작은 문제들에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지역문제나 사회문제 해결에 작은 도움을 주면서 미래에 제 아이들이 좀 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어 주고 싶은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요.

모금액이 청년들을 위해 사용되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이 금액이 청년들의 사회문제 해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요즘 청년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도 많고 취업시장이 얼어붙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걸로 알아요. 저 역시 대학교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고향에 내려와 농사일을 하고 있어요. 농사일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람 있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자신의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어요. 함께일하는재단에서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해줄 거라고 믿어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친구들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행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싶어요”

내일에서 on 편지 후원자로서 후원의 참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음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관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후원에 참여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후원하는 기관의 사업과 활동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동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업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 사업을 더 잘 할 수 있게 독려해주고 잘못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후원자가 충언을 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종의 감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캠페인에 대해 잘 모르고 있거나 참여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도 처음 기부를 제안 받았을 때는 내 자신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기우였다고 생각해요. 직접 나눔에 동참하고 나니, 제 스스로 더 넉넉해지고 부자가 된 기분이에요. 우선 작은 부분에서부터 나눔을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를 기부하느냐 보다 나눔을 시작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또 가족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가족 간에 사회활동에 참여한다는 공통분모가 생긴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개인이 참여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많은 금액을 모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일에서 on 편지 QR코드



청년에게 보내는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젊은 청년 농부예요. 취업을 준비하며 저도 다양한 일을 해보았지만 제가 꿈꾸고 잘하는 일을 선택해서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 꿈은 우리나라 농업기술을 개발해 질 좋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것이예요. 여러분도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고 항상 꿈과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라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의 분야에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에 맞는 진로 탐색을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청년들 힘내세요!

-이기중 드림-

내일에서 on 편지로 후원 추천해주세요!

1. Who 누가

현재 「TOGETHER+ 함께」를 읽고 계신 고마운 후원자님

2. What 무엇을

후원자님의 지인들에게 내일에서 on 편지를 추천해 주세요!

3. How 어떻게

① 전화로 신청하기

02-330-0713, 02-330-0715

(내일에서 on 편지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세요)

② 메일로 신청하기

shmin2016@hamkke.org (내일에서 on 편지 신청자 수, 신청자 성함)

4. When 언제

365일 언제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지금 '내일에서 on 편지' 후원자가 되시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기간(2018. 6. 1 ~ 7. 31)내 후원 신청자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 STP 파트너기관 참가

세계 각국의 핸드메이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서울국제핸드메이드페어가 5월 24일부터 4일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스마일투게더파트너십 사업 파트너 8개국 10개 기관이 참여해 해외 지원기관의 상품과 지원사업을 소개했습니다. 재단은 2016년부터 연 1회 기업 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해 파트너 기관들이 한국 시장에 초기 진입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시니어케어매니저 양성 및 활동지원 사업 발대식

지난 4월 12일 재단 지하 교육장에서 유한킴벌리와 함께 시니어케어매니저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시니어 일자리기금을 통해 운영되는 이 사업은 시니어의 에너지와 경험이 무한한 자원이라는 생각 아래 2012년부터 진행해온 사업입니다. 올해 시니어케어매니저 3기로 활동하게 될 50명의 시니어가 발대식에 참여했으며, 30시간 이상의 양성교육 과정을 통해 총 30명이 최종 선발되어 시니어케어매니저로 활동하게 됩니다.



<Hello new world> 찾아가는 설명회 서울디지털대학교 방문

재단은 5월 3일 특성화고교 IT 희망기움 사업을 위한 <Hello new world> 찾아가는 설명회를 서울디지털대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찾아가는 설명회는 학생들의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학교에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특강입니다. IT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회적기업가, IT 전문가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해커톤대회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IT기술'이라는 주제로 7월 13~14일까지 1박 2일 동안 신세계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 주거공간 허그셰어하우스 기부금 전달식

재단은 지난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옥에서 대학생 및 청년에게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함께일하는재단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함께 만든 허그(HUG) 셰어하우스는 현재 2호점까지 설립되었으며, 공유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지방 출신 취업준비 대학생에게 주변 시세의 60% 정도의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하며 무로의 공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미혼모 자립지원 캠페인 빅워크투게더

빅워크투게더(BIGWALK TOGETHER)는 재단과 (주)빅워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미혼모 자립지원을 위한 캠페인으로 사회적 편견과 시선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엄마들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빅워크 어플리케이션을 켜고 후원자가 매월 목표한 기부금 만큼 걸어서 기부할 수 있는 새로운 모금 플랫폼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걷은 걸음만큼 기부됩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기부자들에게는 걷기 페스티벌, 네트워킹 파티, 연극 공연 관람 기회가 제공됩니다.



창업자(팀) 네트워크 강화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워크숍

재단은 올해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에 선정된 8기 창업자(팀) 30곳을 대상으로 1박 2일 워크숍을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KT&G 상상마당 춘천스테이에서 진행했습니다.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실시한 이번 워크숍은 멤버십 강화, 선배 창업팀 및 지역 사회적기업가 사례 발표, 네트워킹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재단은 창업에 특화된 소셜벤처인큐베이팅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30개의 신규팀을 발굴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 한겨레 나눔꽃 캠페인] 과거 딛고 자립을 꿈꾸는 **붕어빵** 형제의 **빵빵**한 미래를 응원해 주세요!

안양시 인근 골목에는 구수한 붕어빵 냄새가 끊이지 않습니다. 포장마차 속 청년은 능숙하게 팔 반죽을 붕어빵 형틀에 붓고 이리저리 뒤집는 일을 반복합니다. 진짜 붕어만큼 살이 두툽하게 먹음직스러운 팥빵을 보고 청년들은 웃어보입니다. 붕어빵 장사를 하는 조병천(가명·24) 씨 이야기입니다.



사실 조씨와 고씨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붕어빵 장사는 성인으로서 떳떳한 삶을 살아보고자 하는 인생의 도전입니다. 이들은 청소년 시절 소년원을 몇 차례씩 드나들었다가 각각 2012년, 2017년 사회로 나왔습니다. 소년원 신세까지 지게되는 청소년들은 결손가정에서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과 학대, 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이유로 가출을 하고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어울리며 비행을 저지르다가 결국 소년원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비행 유전자를 갖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조씨와 고씨가 각각 소년원을 나와 사회에서 친형제처럼 지내게 된 건 김기현(38) 씨와의 인연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씨는 법무부가 운영 중인 경기청소년자립생활관의 생활지도실장입니다. 청소년자립생활관은 소년원에서 나온 청년들이 사회에

온전히 정착하기 전 숙소 등의 지원을 받는 곳입니다. 김 실장은 조씨에게 붕어빵 장사를 권했고 고씨에게는 격투기 선수가 될 수 있는 훈련을 권했습니다. 김 실장은 직접 붕어빵 만드는 법을 배워 조씨에게 전수했습니다. 김 실장은 고씨가 다닐 체육관을 직접 알아봐주고 운동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김 실장의 관심과 도움 덕에 조씨의 붕어빵 매출은 하루 5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고씨는 타고난 운동감각으로 최근 지역 종합 킥복싱대회에 나가 첫 출전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조씨는 동생 고씨가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붕어빵 장사를 해 체육관 비용을 대주기로 결심하고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겨레 기사 2018. 3. 27.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사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년원 출소 청년들이 다시 자기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모금 목표액은 500만원으로 후원금은 한국소년보호협회를 통해 사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년원 출신 청년들의 생계비와 구직활동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500만 원 이상이 모금될 경우 다른 소년원 출신 청년들의 자립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후원계좌 KB국민은행 032901-04-181772 함께일하는재단
후원문의 전화 02-330-0744 홈페이지 www.hamkke.org



사람과 지구는
함께 살아야 한다고
숲은 우리를 대신해
오늘도 지구의 열을 내리고 있네요
숲이 지구의 해열제입니다

작은숲모여
더큰숲으로